

기독교상담의 새로운 패러다임: - 체계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

최광현(천안대학교)

I. 여는 글

본 연구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 안의 인간갈등을 다루며, 여기에 목회상담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논문은 인간과 그 환경체계를 관찰하고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체계론적 관점을 통해 인간체계의 관계와 의사소통의 구조를 파악하고 갈등의 요인을 서술하고자 한다. 체계론적 사고는 인간을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게 하며 한 개인의 문제뿐 만 아니라 한 집단의 갈등요인을 각각의 개인들에게 돌리지 않고 개인들을 둘러싼 환경과 구조에 돌린다. 체계론적 사고에 의하면 가족 안의 갈등은 그 가족이 가진 역기능적인 체계와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족체계에서 발생된 갈등은 그 가족체계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표현된 것으로, 가족체계에 기능장애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체계론적 사고를 통해서 가족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새롭게 이해하고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가족 안의 인간갈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론적 패러다임이 인간의 갈등과 고난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가족갈등상담이 기독교상담학 안에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펴는 글

1. 인간갈등에 대한 패러다임

1) 심리학적 사회적 이해를 통한 갈등이해

갈등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Conflict이며 독일어로는 Konflikt이다. 갈등을 뜻하는 이 말들은 모두 라틴어의 *configere*에서 기원 된다. 이 말은 싸우다, ‘다투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인간의 갈등은 언제나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했고 폭력과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갈등의 결과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낳았고 갈등 대상자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다. 이 갈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문화와 인종을 넘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인간 현상이다. 국가와 국가 간에, 단체와 다른 단체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갈등은 존재 한다. 인간의 갈등은 세속적인 조직과 단체들뿐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 갈등의 문제는 오랜 인간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위에서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학문적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오늘날 본격적인 갈등연구는 심리학, 사회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의 분야에서 주요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심리학의 분야에서 S. Freud는 인간의 갈등을 설명하고자 인간의 내적인 갈등의 원인과 발생방법, 갈등의 과정을 분석하였다.¹⁾ Freud에 의한 이러한 인간갈등의 이해는 그 후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어왔다. 사회학의 분야에서의 갈등연구는 심리학의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며, 1957년 J. Bernard의 소논문 “Where is the modern sociology of conflict?”에서 본격적인 인간갈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²⁾ 이러한 갈등연구의 시작이 현대 상담심리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2) 인간갈등에 대한 목회 상담적 이해

심리학과 사회학에서의 발전 속에서 역시 인간갈등의 한 모습인 가족 안의 갈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오늘날 인간의 갈등 연구는 목회상담의 영역 안에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분명히 기독교인 관계 안에 갈등이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존재한다

¹⁾ J. Breuer/ S. Freud, *Studien ueber Hysterie, 4. unveraendere Aufl.* (Frankfurt am Main: Fisher Taschenbuch Verl. 2000), 11.

²⁾ J. Bernard, “Where is the modern sociology of conflict?” in *Journal of Sociological Association, The Nature of Conflict*, 1957.

는 것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알릴 수 없었으며 또한 이것을 인정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은 내부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이것은 때로는 은폐되어지고 더 큰 갈등의 요인이 되어왔다.³⁾ 이렇듯이 인간갈등은 기독교인 가족이나 교회 안에 존재하며 많은 오해와 미숙한 해결방법으로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일으키곤 한다. 이러한 인간갈등을 해결하고자 목회상담 영역 안에서 최초로 체계론적 관점을 통해 갈등해결을 시도한 사람이 Friedman이다.⁴⁾ Friedman은 교회를 가족체계와 같은 하나의 체계로 보았으며 가족체계와 교회체계가 가지고 있는 관계 체계들의 감정적인 상호의존성의 정도에 근거하여 가족의 체계이론이 교회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에 Morgenthaler는 가족체계로서의 교회체계라는 Friedman의 주장을 창조적인 몰이해라고 비판하였다.⁵⁾ 그는 말하길 교회는 분명히 가족과는 확연히 다른 시스템이며, 비록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서로 가족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교회의 몇 백 명의 성도들이 또는 그 이상의 수의 성도들이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⁶⁾

여기서 Friedman이 시도한 가족체계와 같은 교회체계라는 관점을 Morgenthaler의 지적처럼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체계의 관점 속에서 가족 안의 갈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목회상담 영역 안에서 Friedman에 의해 시작된 체계적 사고의 적용 가능성은 역시 교회 안의 가족들의 다양한 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인간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체계론적 사고는 가족 안에 있는 인간의 문제와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3) 갈등에 대한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적 이해

인간의 갈등은 그동안 일반상담뿐 아니라 목회상담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

3) B. Leas, Speed, *Leadership and Conflict*,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8.

4) H. Friedman, *Generation to Generation. Family Process in Church and Synagogue*, (New York, 1985) 13.

5) C. Morgenthaler, *Systemische Seelsorge*, (Stuttgart/Berlin/Koeln: Kohlhammer, 1999), 280.

6) Morgenthaler, 116-141.

상이 되어왔다. 인간의 갈등을 처음으로 심리학의 영역 속에서 체계화 시킨 사람이 Freud이다. 그는 갈등을 id와 ego, superego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인간갈등의 원인을 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갈등이해는 정신분석과 심층심리학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Freud가 갈등을 보는 시각은 환원주의적인 단선적(linear)인 인과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에 따라 인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있다.⁷⁾ 환원적 사고에 의하면 문제는 한 가지 원인에만 근거를 하며 관찰 할 수 있는 현상의 다양성을 단지 한 가지 원인으로 축소시킨다. Freud는 이러한 환원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철저히 개인의 내적 심리에서 인간갈등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였다. 또한 갈등해결 역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려고 하였지만 단선적이고 기계적이다. 즉, 인간의 환경이 주는 조건에 의하여 인간의 행동이 직선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 갈등이해에 대한 환원주의적 사고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Bateson⁸⁾, Fromm⁹⁾, Levenson¹⁰⁾, Piaget¹¹⁾, von Bertalanffy¹²⁾ 등은 환원주의적 갈등이해가 가진 기계주의와 단선적 결정론에 대해 비평을 하였다. 인간의 갈등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라는 직선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율에 의해 다루어질 수 없는 수많은 상호작용의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환원주의적 사고는 이것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살펴본 것 같이 인간의 갈등은 내적인 자아 상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성에서 일어난다. 인간은 혼자서 살수 없고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개인을 둘러싼 이러한 주변 환경은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

7) G. Guntern, "Die kopernikanische Revolution in der Psychotherapie," *amiliendynamik* 5 (1), 1980, 9-10.

8) G. Bateson, *Oekologie des Geistes*,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9), 30-33.

9) E. Fromm, *Analytische Sozialpsychologie und Gesellschaftstheorie*, (Frankfurt/M: Edition Suhrkamp, 1970).

10) E. A. Levenson, *The Fallacy of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the Changing Structure of Psychoanalysis* (New York: Basic, 1972).

11) J. Piaget, *Psychologie der Intelligenz*, (Olten: Walter, 1971).

12) L. von Bertalanffy, *General System Theory*, (New York: Braziller, 1968).

요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의 갈등을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새로운 갈등 이해는 체계론적 인식론에서 기원된다. 체계론적 인식은 인간을 하나 이상의 체계 속에 있는 존재로 보며 한 개인의 갈등과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그를 둘러싼 체계에 돌린다.

우리가 체계론적 인식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환원주의 인식론이 하지 못하는 인간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많은 환경 안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사회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인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체계론적 인식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을 사고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체계의 갈등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된다.

4) 가족 안의 갈등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족 안의 갈등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갈등발생의 근본원인은 그 가족체계가 가진 역기능적인 체계의 구조에 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그 가족이 가진 체계 속에서 각기 하나의 요소를 이루는 대상이 되며 그리고 가족 안에 있는 관계와 의사소통을 구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이라는 전체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안에서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구성원은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며, 상호작용 속에서 그 가족시스템의 복잡성과 그 가족의 다양한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족 안에서 갈등을 보는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가족 안의 갈등은 더 이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의 성격과 개인적인 특성을 통해서 기인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 가족 체계에서 발생된 갈등은 그 가족체계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 안의 갈등의 발생은 그 가족체계에 기능장애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역기능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갈등을 보는 관점은 체계적 사고의 시작과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2. 가족갈등이해와 체계론적 사고

1) 체계론적 사고의 시작과 발전

체계론적 사고는 가족치료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 방식이다. 즉, 우리는 체계적 사고를 통해 자신과 세계를 볼 수 있으며, 역시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와 해결방법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체계적 가족치료는 다른 심리치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자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 번째 가족치료를 위한 자극은 임상분야에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던 심리치료사들이다. 이들은 각기 정신분열과 같은 심각한 진단을 받은 아동 또는 성인들을 치료하면서 기존의 치료 방법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치료방법에, 즉, 정신분석에 만족하지 않던 치료사들은 치료과정에 내담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을 참여시키기 시작하였다. 가족치료가 시작된 두 번째 자극은 특히 Bateson에 의해서 발전된 사이버네틱스 인식론의 영향이다.¹³⁾

가족치료의 시작과 발전에 공헌한 심리치료사들과 연구가들은 무엇보다 우선 인간이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해결책을 찾기를 원했다. 이러한 시도는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안에 체계적 사고와 사이버네틱스적인 개념을 받아들일도록 이끌었다. Von Bertalanffy의 일반체계이론에 근거하여, 가족치료사들은 가족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체계라고 본다.¹⁴⁾ 즉, 한 체계는 자신의 환경과 물질을 서로 교환하며 동시에 한 체계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으로써 서술될 수 있다.¹⁵⁾ 체계 안에 있는 요소들은 각각의 인간이며, 체계가 가족이라면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이라는 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이 된다. 가족체계의 요소들인 가족구성원들은 각기 체계 안에서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체계적 사고는 인간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체계의 요소인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다. 만일 한 체계를 관찰한다면 이 체계가 전체체계로써 많은 하부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¹⁶⁾ 그러나

13) P. Watzlawick/ P. Beavin/ D. Jackson, *Menschliche Kommunikation*, (Bern: Huber, 1969), 34-39.

14) E. Jones, *Systemische Familientherapie*, (Dortmund: Verlag moderns lernen, 1995), 12-16.

15) L. von Bertalanffy, 149.

16) A. von Schlippe/ J. Schweitzer, *Lehrbuch der systemischen Therapie und Beratung*, (Goe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9), 18-20.

동시에 이 체계가 보다 더 큰 체계 안에서 한 하부체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체계이론은 가족치료의 다양한 모델들에 의해 중요핵심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들 가족치료의 모델들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게 하는 체계이론을 통해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2) 가족치료에서부터 체계론적 가족치료까지

체계적가족치료는 오늘날까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치료모델들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다양한 가족치료이론과 치료기법은 체계적가족치료의 성장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L. Boscolo 는 사이버네틱스이론과 일반체계이론을 배경으로 가족을 치료하던 사이버네틱스 제 1규칙의 치료방법을 가족치료라고 불렀으며 이것은 거듭된 발전을 통해 즉, 사이버네틱스 제 2규칙으로의 진보를 통해 이제는 체계적가족치료 라고 불려진다고 한다.¹⁷⁾ 사이버네틱스 제 1규칙은 1980년대 이전의 가족치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Bowen의 다세대가족치료, Minuchin의 구조주의 가족치료, Satir의 성장중심의 가족치료, Haley의 전략적 가족치료, Palazzoli의 체계적인 가족치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이버네틱스 제1규칙의 모델들은 Bertalanffy의 시스템이론과 Wiener의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기초한다. 오늘날 종종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심리치료를 모두 통틀어서 가족치료에 분류시키지만 원래의 가족치료는 이 두 개념에 기초한 가족치료모델에 한정한다. 1980년대 이후로 사고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였던 포스트모던의 구성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가족치료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왔다. 구성주의는 철학에서 시작된 사고로 모든 사물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지 주관적으로 인간에게 인식되어진 것으로 여긴다. 모든 사물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지 관찰되는 것이다. Boscolo와 Cecchin는 이러한 구성주의를 가족치료에 적용시켰으며 이것이 사이버네틱스 제 2규칙의 시작이다. 급진적 구성주의는 물리학자인 Foerster에 의해 발전되었다. 급진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⁸⁾ 인간의 인식은

17) L. Boscolo, P. Bertrando, *Systemische Einzeltherapie*, (Heidelberg: Carl-Auer-Systeme Verlag, 2000), 30-34.

18) H. von Foerster, *Das Konstruieren einer Wirklichkeit*, (Muenchen: Piper, 1981), 130-133.

상대적인 것이며 인간의 각자의 인식은 단지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치료는 가족시스템의 갈등을 관찰된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 L. Hoffman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가족시스템에서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문제들, 즉 역기능이란 없고 단지 관찰자에 의해 관찰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¹⁹⁾ 따라서 역기능적인 가족의 갈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이제 사이버네틱스 제 2규칙에서의 갈등해결이란 관찰자와 관찰하는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다. 상담사와 가족전체는 서로 관찰을 통하여 역기능적인 가족체계를 찾아간다. 이전에 상담사는 역기능적인 체계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체계를 바꾸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가족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기능적인 체계를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상담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가족체계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인간

체계론적 사고 안에서 인간의 인식과 행동의 구조는 인간이 속한 체계의 구조와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그 가족이 가진 체계 속에서 각기 하나의 요소를 이루는 대상이 된다. 체계적 관점에 의하면 가족은 가족 안에 있는 관계체계와 의사소통체계를 구성하고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 안에 있는 개인 간의 갈등은 그 가족체계의 복잡성과 그 가족의 다양한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족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족 내부와 외부에서 형성한 관계체계와 의사소통체계가 주변상황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서 가족체계의 갈등해결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본다. 이처럼 체계적 관점은 체계 안에서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환경이 다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룬다. 이러한 사고에 의하면 인간은 환경에 따라 위치가 변화되며 그의 경험도 변하게 된다. 가족갈등을 위한 해결은 현재의 관계체계와 의사소통체계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과거를 조사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과거란 현재의 가족체계와 기능을 형성하는데 작용했기 때문

19) L. Hoffman, *Grundlagen der Familientherapie*, (Salzhausen: Iskopress, 1995), 64-76.

이며, 현재 안에서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변화 될 수 있다. 즉, 가족 안의 갈등해결을 위한 현재의 변화대상은 가족 체계이다. 목회상담사는 가족공동체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변화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다. 관계체계와 의사소통체계로 이루어진 가족체계는 구성원들을 지지, 조절 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담사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의 의사소통과 관계체계 안에서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체계자체의 기능을 수정, 보완시킨다.

A. 가족갈등체계의 의사소통

Selvini Palazzoli에 의하면 가족은 다양한 사회적 체계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 사회 체계 안에서의 한 요소로 존재 한다고 말한다.²⁰⁾ 사회 체계로서의 가족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하부 시스템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외부 환경들과 내부적 하부 시스템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방체계를 가진 가족만이 기능적이며 적절한 작동을 할 수 있다. 개방체계로써 기능 하는 가족은 그를 둘러싼 환경들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행한다. 의사소통체계로서의 가족은 역시 언어적인 또는 신체언어, 분위기, 상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그리고 외부 시스템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다. Breitenbach에 의하면 이러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가진 가족이 건강한 체계를 가진 가족이라고 한다. ²¹⁾ 따라서 체계론적 사고 안에서 인간갈등은 무엇보다 의사소통체계와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을 가진 가족은 왜곡되고 손상된 의사소통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 안에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은 결국 의사소통체계의 역기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가족은 그들의 사회적 환경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의사소통을 나눌 때 무엇보다 자기조절의 능력이 필요해진다.

가족체계와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정보는 가족구조 안에서 가족체계와 환경에 피드백으로써 기능을 하며 피드백은 가족시스템의 자율통제 기능에 의해서 조절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갖는

20) M. Selvini Palazzoli, *Self-Stavation*, (NY: Aronson, 1974), 23.

21) G. Breitenbach, *Gemeinde leiten*, (Muenchen: Piper, 1994), 156.

다.²²⁾

사이버네틱스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자율통제는 피드백 망 시스템으로부터 유래된 개념이다. 피드백 망은 시스템의 특성을 표현하는 용어이며 자율통제는 피드백 망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이다.²³⁾ 자율통제 개념은 시스템이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의사소통을 전달하면서 스스로 정보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말한다. 외부체계와의 무제한적인 의사 교류는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가족체계는 외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자기조절의 기능을 통하여 통제하고 수용하여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갈등을 일으키는 역기능적인 가족체계는 의사소통에서 자기 조절능력이 결여되어 외부의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폐쇄적 체계를 가진 체계일 것이다. 이러한 폐쇄체계를 가진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을 갈등상태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며 일정한 문제에 휘말려 가족들이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B. 가족갈등체계의 관계

목회상담의 영역 안에서 심층심리학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J. Scharfenberg는 이미 가족 안에 관계구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²⁴⁾ 그러나 이러한 가족관계구조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이고, 인간사이의 관계구조가 아닌 인간 내부의 무의식과 관련된 관계에 대한 이해에 한정되었다.²⁵⁾ 이제 체계적 사고를 통해 가족의 관계구조를 인간들 사이의 관계성에서, 즉, 사회적인 구조의 틀 속에서 보게 된다.

가족의 관계구조는 가족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직화하는 보이지 않는 틀이다. 가족은 상호작용을 통해 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다. 가족의 구조 안에서 구성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언제, 어떻게,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유형이 만들어지며, 이들 유형에 의해 체계가

22) H. Froer, *Konfliktregelung, Kybernetische Skizzen zur Lebensberatung*, (Muenchen: Piper, 1976), 8.

23) Froer, 8-10.

24) J. Scharfenberg, *Einfuehrung in die Pastoralpsychologie*, (Goettingen: Vandenhoeck, 1994), 57-59.

25) I. Karle, *Seelsorge in moder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6), 3.

유지되어 나간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S. Minuchin에 의하면 가족은 인간의 가장 자연적인 사회집단이며, 가족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계속되는 자극과 도전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일정한 반응과 행동을 통제한다. 가족이 가진 구조는 가족 구성원이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며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을 조정한다²⁶⁾. 모든 가족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족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체계론적 사고는 이들 가족관계구조 안에서 가족이 지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사는 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하고, 어떤 관계체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여기서의 상담은 가족이 그 동안 유지해온 역기능적인 가족의 구조와 문화를 발견하고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길을 찾는 작업이다. Minuchin은 특히 가족관계의 경계선과 위계질서의 개념에서 가족관계체계의 역기능성을 발견한다.

어떻게 가족체계 안에서 하부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부모상위체계는 잘 기능하고 있는가? 자녀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하는가? 부모 중 누군가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리감을 갖고 있는가? 가족간에 서열이 너무나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지 않은가? 하부체계와 상위체계 즉, 부모체계와 자녀체계 사이에 엄격한 경계선이나 지나치게 희미한 경계선이 놓여 있는가?

체계론적 관점은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가족이 어떤 경계와 하위체계가 존재하는지를 이해한다. 따라서 가족의 문제와 갈등을 위한 해결과 치료는 먼저 가족관계의 경계선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가족치료 안에서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은 가족 세대 간의 분명한 경계선을 요구하면서 가족관계 안에 형성되어 있는 동맹과 연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을 파악하고 가족체계 안에서 자기 위치를 규정한다. 구조적 가족치료는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학관계와 관계형태를 관찰함으로써 가족이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체계를 바라보는 체계론적인 관점은 갈등을 가진 복잡

26) S. Minuchin,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78-90.

한 가족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내담자 가족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문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족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Minuchin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 안에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반복 작용을 하여 상호작용의 일정한 관계유형을 만들게 된다.²⁷⁾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유형이 매우 넓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가족은 내부적 외부적 변화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의 준거틀을 제공하여 연속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도록 체계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족체계는 하위체계로 분화되고, 분화된 하위체계를 통해 가족체계의 기능이 수행된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가족의 부부체계, 자녀체계 등과 같은 하위체계에 속한다. 각 개인은 가족 안에서 다양한 하위체계에 속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각기 다른 권력(Power)을 갖게 되며, 다양한 관계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론적인 관점 속에서 가족체계의 갈등은 각각의 하위체계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각 하위체계들은 변화와 연속성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긴장의 요인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요인들에 반응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들은 상호관계의 위치를 항상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변화는 가족의 다양한 하위체계를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가족체계 안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체계론적 가족갈등이해의 목회상담적 적용

1) 정체성에 대한 탐구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목회상담학 분야의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가족갈등상담의 분야에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중요한 테마가 된다. 갈등상담 속에서 상담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의미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아마도 신학적 바탕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많은 격차를 보일 것이다.

사실 정체성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로부터 성숙되는 것이다. 정체성의 개념은 주변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 타

27) Minuchin, 78-92.

자라는 상호의존성이 동반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갈등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타자가 공감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신학적 내용에 관계하게 하며 동시에 신학의 지나친 도그마티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다.²⁸⁾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가족갈등을 해결하는 상담사에게 신학적, 상담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해줄 것이다.

2) 영성적 정황에 대한 고려

가족갈등은 표면적인 갈등의 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 부부의 성격문제, 경제문제와 같은 유형상의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갈등은 너무나 다양한 요소와 문제의 동기를 갖고 있다. 단순히 한가지의 관점을 통해 해석할 수 없는 다양성과 차이들이 존재한다. 기존의 가족치료는 가족갈등의 요인으로 영성을 배제하였다. Jung은 말하길, 35세가 넘는 내담자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영성적 조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⁹⁾. 따라서 체계론적 관점을 가진 목회상담은 기존 가족치료의 영성에 대한 물이해에서 벗어나 이러한 영성에 대한 전이해를 전제해야 한다. 독실한 신앙을 지닌 가족들은 흔히 가족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통해 언젠가 가족의 갈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가족갈등에 대한 개입은 기존의 가족치료적 개입 보다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사는 가족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영성적 상황과 처한 위치를 확인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신뢰성의 의미

교회 안에까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와 양심의 문제를 직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지기 때문에 오늘날 죄인식의 문제는 목회상담의 어려운 한 과제로 존재한다. 오늘날 교회는 죄와 심판을 외치고 죄의식을 일으키게 하는 소위 고리타분한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목회 상담사와 설교가는 협박의 메시지 대신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애를 쓴다. 이러한 것과는 반

28) E. Hauschildt, 「창조적인 목회를 위한 실천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258-259.

29) C. E. Westgate, "Spiritual Wellness &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1, 1996, 26-36.

대로 잘못된 죄책감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건강한 인격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은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관계갈등 속에서 볼 수 가있다, 즉 부부사이에서, 가족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

가족갈등상담은 타부의 영역인 갈등을 다루는 상담의 분야로 매번 타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과 싸워야 한다. 가족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갈등해결을 간절히 바라지만 반면에 자신들의 허물을 인식하지 못하며 또한 이들은 제3자인 상담사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갈등상황은 대부분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건강한 이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 놓여있게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담사가 가족갈등의 당사자들에게 다가가고 문제를 개입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담사의 이러한 신뢰성은 무엇보다 상담사 자신의 객관성과 중립성의 원칙에서 기원 될 수 있는 것이다. 상담사는 문제에 대한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해석과 관찰을 반성함으로써 가능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사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가지는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III. 논의 및 결론

그 동안 목회상담학에서 가족갈등과 문제를 보는 시각은 가족구성원들의 내적인 갈등에 치우쳐 왔다. 내담자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은 오직 개인의 역동성과 감정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한된 인간갈등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내담자의 증상을 해결 할 수가 없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아닌 여러 명의 가족구성원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담방법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룬 가족갈등상담은 목회상담학계에 인간의 갈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 인간의 갈등은 갈등을 경험하는 개인의 문제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갈등은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구조와 복잡성과 함께 그 가족을 둘러싼 외부

적인 환경에 의존 한다. 따라서 가족갈등은 단순히 갈등 참여자들의 개인 간의 감정과 성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첫째는 가족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족시스템을 통해 즉, 전체체계를 이루는 하부체계와의 구조와 복잡성을 통해서 갈등이 발생된다고 본다. 둘째로 이들 시스템들이 기능과 작동의 원리인 관계체계와 의사소통체계의 왜곡과 역기능 상태에서 갈등이 발생 되는 것이다. 체계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갈등상담은 인간을 체계적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로 본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작동되고 다양한 다른 사회적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는 복잡하고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존재로써 본다. 이렇게 인간을, 가족구성원을, 그리고 가족전체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체계로써 바라보는 체계적 사고는 체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상담사에게는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체계론적인 관점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 관문의 하나는 무엇보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시스템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갈등 해결을 위해 상담사는 가족에 갈등을 발생시키는 역기능적인 시스템을 발견하고 이 역기능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갈등 해결을 위한 개입은 사이버네틱스 제 2규칙이 전제 되어야 한다. 가족체계를 역지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닌 현재 역기능적인 체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족이 가진 자원을 발견하도록 한다. 상담은 그 가족이 가진 자원을 통해서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상담사의 역할은 가족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조정자가 아닌 가족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게 하여 그들이 가진 자원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갈등 해결의 도우미인 것이다.

참고문헌

- Anderson, H. / Goolishian, H. (1990), "Menschliche Systeme als sprachliche Systeme", in *Familiendynamik*, 15. 212-243.
- Bateson, G. (1999), *Oekologie des Geistes*, Frankfurt am Main: Suhrkamp.
- Bautsch, A. / Wiesinger, A. (1989), *Systemwissenschaftliche Integrationsversuche in der Psychotherapie, insbesondere in der Familientherapie*, 2. Aufl. Frankfurt am Main: IKO-Verl.
- Bernard, J. (1957), "Where is the modern sociology of conflict?" in: *Journal of sociological Association, The Nature of Conflict*.

- Bertalanffy, von L. (1968), *General System Theory*, New York: Braziller.
- Boscolo, L., Cecchin, G., Hoffman, L., Penn, P.(1990), *Famillientherapie-Systemtherapie*, Dortmund: Verlag moderns lernen.
- Boscolo, L., Bertrando, P.(2000), *Systemische Einzeltherapie*, Heidelberg: Carl-Auer-Systeme Verlag.
- Breitenbach, G. (1994), *Gemeinde leiten*, Muenchen: Piper.
- Breuer, J., Freud, S. (2000), *Studien ueber Hysterie, 4. unveraendere Aufl.* Frankfurt am Main: Fisher Taschenbuch Verl.
- Foester, von H. (1981), *Das Konstruieren einer Wirklichkeit*, Muenchen: Piper.
- Friedman, E. H. (1985), *Generation to Generation. Family Process in Church and Synagogue*, New York.
- Froer, H. (1976), *Konfliktregelung, Kybernetische Skizzen zur Lebensberatung*, Muenchen: Piper.
- Fromm, E. (1970), *Analytische Sozialpsychologie und Gesellschaftstheorie*, Frankfurt/M: Edition Suhrkamp.
- Guntern, G. (1980), "Die kopernikanische Revolution in der Psychotherapie", in: *Familiendynamik* 5 (1), 2-41.
- Hauschildt, E. 이영미 역음, (2000), 「창조적인 목회를 위한 실천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 Hoffman, L. (1995), *Grundlagen der Familientherapie*, Salzhausen: Iskopress.
- Jones, E. (1995), *Systemische Familientherapie*, Dortmund: Verlag moderns lernen.
- Karle, I. (1999), *Seelsorge in moder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Kohlhammer.
- Leas, Speed B. (1982), *Leadership and Conflict*, Nashville: Abingdon.
- Levenson, E. A. (1972), *The Fallacy of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the Changing Structure of Psychoanalysis*, New York/London: Basic.
- Luhmann, N. (1984), *Soziale Systeme. Grundriss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m Main.
- Maturana, H. R. (1996), *Was ist Erkennen?* Berlin: Suhrkamp.
- Minuchin, S. (1979),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 Molnar, A., Lindquist, B.(1984), "Erkenntnisse ueber Verhalten und Strukturen verbinden", in *Systemische Therapie*, 2. 216-223.
- Morgenthaler, C.(1999), *Systemische Seelsorge*, Stuttgart, Berlin, Koeln:

Kohlhammer.

Piaget, J.(1971), *Psychologie der Intelligenz*, Olten: Walter.

Scharfenberg, J.(1994), *Einfuehrung in die Pastoralpsychologie*, Goettingen: Vandenhoeck.

Schlippe von A./ Schweitzer, J.(1999), *Lehrbuch der systemischen Therapie und Beratung*, Paderborn: Vandenhoeck & Ruprecht.

Seiler, D.(1991), "Person, Rolle, Institution", *WzM*, 43, 199–215.

Selvini Palazzoli, M. (1974), *Self-Stavation*, NY: Aronson, 1974.

Speed, B. Leas, (1982), *Leadership and Conflict*, Nashville: Abingdon.

Westgate, Charlene, E. (1996), "Spiritual wellness &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1, 26–36.

Watzlawick, P., Beavin, P., Jackson, D.(1969), *Menschliche Kommunikation*, Bern: Huber.

Abstract

Seelsorge in systemischer Perspektive: Zur seelsorgerlichen Theorie ber Menschen als System

Innerhalb der Praktischen Theologie ist der Ort fr die Behandlung von Leitungs- und Steuerungsfragen die theologische Kybernetik. Wer die 'Kybernetik' in der Praktischen Theologie heute stark machen will, kann dies nicht tun ohne ein Verstdnis des systemischen Denkens, das sich in biologischen, naturwissenschaftlichen und sozialwissenschaftlichen Bereichen entwickelt. Die Gemeindeleitung bercksichtigt die Beziehungsebene und interpretiert sie im Horizont des systemischen Denkens. Auf der Basis des systemischen Denkens im Zusammenhang mit

der Kybernetik kann die Gemeinde als System und auch als ein vernetztes System betrachtet werden.

Die familientherapeutische Schule stellt Konflikte in den Zusammenhang des Systems und betrachtet Konflikte eines individuellen Familienmitglieds als den Ausdruck eines Problems im Umfeld. Aus familientherapeutischer Sicht wird das

Systemisches Denken meint nicht spezifisch die Theorie des Systems, die als eigentliche Systemtheorie vor allem durch N. Luhmanns entfaltet wurde, sondern umfasst die Fülle verschiedener Ansätze, die statt vom Einzelnen aus vom sozialen System her denken.

Im systemischen Denken ist auch ein Verständnis von Konflikten enthalten. Die Suche nach nützlichen Erklärungen der Konflikte und Leiden hat in der therapeutischen Praxis zur Übernahme systemischen Denkens geführt.

Die Konflikt Diskussion gewinnt eine neue Bedeutung durch systemisches Denken, das das Beziehungssystem und Kommunikationssystem reflektiert. Der systemische therapeutische Ansatz, der auf dem systemischen Denken basiert, betrachtet den einzelnen Menschen im Beziehungsgefuge seines Umfelds und sieht menschliche Konflikte als Ausdruck bestimmter Beziehungsmuster und Kommunikationsmuster. Auf der Basis des systemischen Denkens lassen sich Familien oder auch andere Organisationen wie kirchliche Gemeinden aufgrund ihrer internen und externen Beziehungen und Strukturen als Systeme von Menschen in wechselseitiger Interaktion betrachten.

주제어(Key Word)

체계적 관점(Systems View), 가족갈등(Family conflict),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